

4월 재보선 넘어 내년 대선까지...판 뒤집을 태풍될까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정치권 출렁

재보선 정권 견제 심리 결집 가능성

여권 "결국 찾잔 속 태풍에 그칠 것"

확실한 대권주자 없는 야권선 기대

야권 통합·정계개편 물꼬 틀 수도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다.

일단, 윤 총장이 당장 직접적 정치 행보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사퇴 자체가 지난 정치적 상징성에 따라 4월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 판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단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반대를 앞세워 윤 총장이 사의를 밝혔다는 점에서 4월 재보궐선거의 '대선 전초전' 의미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가 재조명되고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 저변에 정권 견제 심리가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 사퇴 이슈가 폭발한다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 여당에 유리한 이슈가 묻혀지지 않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격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고,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고 비난했으며,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윤 총장의 무책임한 사퇴는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누구냐, 사퇴하느냐가 입법 과정을 좌우할 수는 없다"며 윤 총장의 사퇴를 비판했으며, 노웅래 최고위원은 SNS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슈를 집중시켜 보궐선거를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정권의 검찰장악 시도에 대한 항거'라고 옹호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사퇴는 그를 쫓아내기 위해 중수청법을 만들고 집요하게 압박했던 집권여당의 '기획축출의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도전을 시사한 원희룡 제주지사로 "(윤 총장의 사퇴) 자기 사람들의 범죄를 검찰로부터 지켜주려는 대통령의 치졸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의 결정은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의 향후 거취를 두고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여권과의 갈등 구도 속에서 야권 대권주자 이미지를 쌓아온 윤 총장이 제3지대에서 '정권견제론'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

에 등판할 경우의 수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여권은 윤 총장의 대권주자 경쟁력을 꺾어내려는 반면 존재감 있는 주자가 없는 야권에선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정계진출 가능성에 대해 "그의 행보를 보면 사의 표명과 함께 정계 진출이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결국 찾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리더십과 비전이 증명된 바 없다는데 별다른 정치적 기반도 없어 결국 야권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뚜렷한 정치적 비전 없이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반대를 위한 결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이 야권에서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에 취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가 한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가 4월 재보궐 선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대선 판을 뒤집을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윤 총장의 폭발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가 야권에 힘을 보태는 제3지대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야권 통합은 물론 야권발 정계개편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정권 심판의 구심점이 되면서 차기 주자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벌써 윤 총장을 차기 유력 주자로 띄우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결국, 윤 총장이 4월 재보궐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행보도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왼쪽)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이성운 유력 속 조남관 거론

법무부 후보추천위 구성 천거작업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전국 검찰의 지휘부인 대검찰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검사나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 총장의 정계 사퇴 때도 두 차례 총장 직무를 대신 수행했다. 직무대행 체제는 차기 총장이 인선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총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인 1년여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시행할 인물이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운(59·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에서 윤 총장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체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차기 총장설이 굳어지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에서 검찰 내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로 꼽힌다. 임기 맡을 때는 정권 입장으로서는 최적의 '방패'라는 평가다.

하지만 검찰 내 신망이 두텁지 않은 데다 현재 검찰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점은 부담이다.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되면 연수원 동기인 23기 고검장들은 대부분 검찰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 남원 출신인 조 차장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 청산 TF 팀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에 보성 출신 김진국 임명

사의 표명 신현수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사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지난달 22일 신 수석으로부터 거취를 일임받은 지 열흘 만이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7일 자신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간부급 인사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신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 지 63일 만에 물러나 문재인 정부의 최단명 민정수석으로 남게됐다. 민정수석 교체 발표는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발표가 있는 지 불과 45분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검찰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갈등 정국'을 속전속결로 종식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굵직한 검찰 관련 인사로 국면을 전환해 임기 후반 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노무현 정부 문 대통령 이명진수석·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도 거쳤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지원 역할을 했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대권 적합도, 이재명 27%·이낙연 12%·윤석열 9% 4개기관 여론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 격차가 약간 좁혀졌다.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가 이 지사가 27%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는 12%, 윤 총장은 9%였다. 1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이 지사는 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이 대표는 1%포인트, 윤 총장은 2%포

인트 각각 상승했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4주 만에, 윤 총장의 지지율은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모른다고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는 33%로, 전주보다 3%포인트 줄었다.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32%로 전주보다 4%포인트 줄었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1%포인트 오른 16%였다. 선택지에 새로 들어간 정세균 총리는 4%를 기록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중에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이 1%포인트 오른 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11%, 무소속 홍준표 의원 10%,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6%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1%,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이었다.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 29%, 국민의힘 21%였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28% 지지를 받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첨단우리병원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